



U.S. DEPARTMENT OF EDUCATION

미국 교육부

2020년 3월 4일

교육 지도자님께:

코로나바이러스 (COVID-19)와 관련하여 최근에 보고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. 중국계 미국인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아시아계로 인식되는 학생들 및 사람들을 향한 고정관념화 (stereotyping) 및 괴롭힘들 (harassment and bullying) 에 관련된 뉴스 보고들의 수가 많이 증가해 왔습니다. 이러한 보고들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, 베씨 디보스 (Betsy DeVos) 장관과 민권 사무국에서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.

교육부는 일부 기관들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(CDC) 가 발행한 지침에 따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

학교와 교육자분들께서는 우리 교육 커뮤니티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 조치들로서 [CDC 지침](#) 및 교육부의 [학교와 교직원을 위한 정보와 리소스\(Information and Resources for Schools and School Personnel\)](#)에 있는 권장 사항들을 따라주셔야 합니다. 하지만 유감스럽게도, 두려운 환경에서 일부 사람들은 인종이나 민족관련 고정관념들 (stereotypes) 의 태도를 취합니다. 더욱 안타까운 점은, 민족관련 괴롭힘들 (harassment or bullying) 은 증오를 고조시키고, 학생들에게 해를 가하며,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. 그런 사건들은 오해와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.

교육 기관들은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, 안전하며,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 차별은 인종, 혈통, 문화 전통에 대한 오해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 학대에서부터 신체 공격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커뮤니티 내에서 일하는 교육 지도자들로서, 우리는 인종이나 민족성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이 용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교육부는 인종과 출신국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들 (bullying and harassment) 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모든 학생을 보호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교육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. 또한 교육부가 상기시켜드리고자 하는 점은, 일부 상황에서 1964년 민권법 제6장(Title VI)은 교육 기관들이 적법하지 않은 괴롭힘 (unlawful harassment) 을 종식하고, 적대적인 환경들 (hostile environments) 을 제거하고, 괴롭힘의 재발을 방지하고, 적절한 경우 그 영향에 대한 구제 방법을 간구하기 위하여, 편견 사건들 (bias incidents) 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우리는 우리 자체의 행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민감한 주제를 논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도 건강 (health) 과 관용 (tolerance) 이 함께할 수 있는 가치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; 이가치들은 우리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교육 우수성의 중심 요소들이기도 합니다.

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나 기술적 지원 (technical assistance) 이 필요하신 경우, 교육부 OCR의 웹사이트 www.ed.gov/ocr로 방문해 주시거나, (800) 421-3481 (TDD: 800-877-8339) 또는 ocr@ed.gov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OCR의 OPEN 센터 (Outreach, Prevention, Education and Non-discrimination)로 OPEN@ed.gov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인종과 피부색,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피할 의무를 비롯한 귀하의 민권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d.gov/OCR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우리 교육 시스템을 모든 학생을 위해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.

감사드리며,

/S/

케네스 마커스 (Kenneth L. Marcus)

민권 담당 차관 드림